

情報通信 혁명과 人間의 意思疏通



金 環 東
〈서울大社會學科교수〉

◇ 多樣的 삶의 내용

현대사회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겪으면서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은 그 변화의 성격은 물론 그것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져다 줄 충격에 대하여 거의 의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변동의 물결에 휩싸여 가고 있다. 기실, 어찌하면 대단히 엄청난 변혁을 초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연구자나 기술자들 스스로도 그들의 작업이 인간집단의 삶에 어떤 효과를 자아낼지에 관하여 뚜렷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공산이 크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술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공하는가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술혁신의 사회적 충격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의 변동은 그 나름의 미묘한 기제로써 움직이는 면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정보통신혁명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사회변동의 특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사회적인 삶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므로, 특히 정보통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다.

◇ 技術革新과 社會變動

일반적으로 기술분야에 혁신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회변동과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모두를 섭렵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세가지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혁신이 인간에게 어떤 효과를 자아

내는가 하는 쟁점을 시발로 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때의 관심사는 기술변동이 인간의 삶에 유익한가 유해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 부정적인 결과를 자아내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답은 양면성을 띤다. 좋은 결과도 초래한 반면에 불리한 점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양면적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와 같은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의 하나는 기술혁신의 기능을 분석하는 접근을 제공한다. 어떤 사회문화적 활동이든지 거기에선 顯示的 기능(Manifest Function)과 잠재적(Latent) 기능이 있을 수 있다. 본시 목적인 바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전자이고, 후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기술혁신도 바로 이러한 양면적인 효과를 사회에 가져 올 수 있다.

세째, 기술혁신의 사회적 충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文化遲滯(Cultural lag)라는 개념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긴장을 다루는 관점이 유용하다.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도 이와같은 문화지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반응과정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보통혁명이 인간의 의사소통행위와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충격과 자아낼 수 있는 결과도 이러한 세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살펴 보는 것이 유익하다.

◇ 情報通信 革命과 意思疏通

현대에 와서 대중통신 매체가 워낙 발달하고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으레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게끔 되어 버렸다. 하지만, 본래적인 뜻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란 모든 상징적 交信을 일컫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에서도 그처럼 넓은 뜻으로 그 말을 쓰려고는 하지 않지만, 대중통신매체 또는 대중전달매체를 연상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마치 일방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점만은 지적해

들만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부러 인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은 물론 개인사이의 대면적, 직접적인 것에서부터 거대한 대중매체를 거치는 것에 이르는 여러 유형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유형들을 총괄해서 다루면서, 현대사회와 또 다가올 정보화 사회의 정보통신혁명이 인간의 의사소통에 어떤 충격을 초래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방면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례들을 제외하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일반화하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 情報폭증의 효과

무엇보다도, 정보통신혁명의 결과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이름 그대로 정보의 양적인 증대를 수반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 것처럼 정보가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을 정보폭증(information explosion)이라 표현할 정도이다

이러한 정보증대는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효과를 자아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선택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슨 물질이나 재화이든 마찬가지로, 양적 팽창에는 자칫하면 질적인 저하를 수반하기가 쉽다. 물론 양의 증대와 함께 질적 수준도 높이는 기술적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만 대체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인간의 하는 일에서 양적 팽창이 적어도 초기 일정기간에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함께 이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소통도 그 내용이 질적으로 조악하고 거칠고 메마른 것으로 전락할 소지가 커진다. 요즈음 거칠어져 가는 청소년문화의 보기에서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본다. 이는 정보폭증을 감당할 심리적·제도적 준비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문화체제의 한 보기이기도 하다.

그 뿐 아니다. 정보폭증은 그에 걸맞는 보조로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도 문화지체의 한 측면을 보게 되는데, 정보란 그냥 있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쓰는 주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이용유형과 범위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정보는 계속 폭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性別, 지역, 학력, 경제적 계급, 권력의 차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정보의 이용과 통제에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다.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보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도 더 강화되어서 불평등이 심화될 소지가 커진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주요 자원이 정보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진 계층이나 집단이 폭증하는 정보를 계속 더 많이 소유·통제·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불평등은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정보의 불평등은 곧 대인간, 집단간, 또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에서 불평등한 위치에서의 교류를 자아내게 됨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 이와같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사실상 인간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현상이다.

◎ 새로운 通信媒体의 含意

정보화 사회를 조장하는 정보통신혁명의 총아는 역시 갖가지의 새로운 통신매체와 컴퓨터이다. 이러한 기체들이 계속 출현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생산·유통과정은 물론, 인간의 노동과정과 일의 조직원리 자체가 변질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일과 여가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와같은 변화는 개인의 근로활동을 비롯하여, 가족, 직장, 지역공동체 및 국가전체에 이르는 여러 수준의 집합적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충격은 보기 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의 기술적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일은 차치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인간의 사회적 삶과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차원에서의 삶에 어떤 뜻을 지니는가 하는 것만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정보처리와 통신의 기체가 점차 고도로 개발됨으로써 앞서 지적한대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생산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사람들의 정보교환 즉 의사소통도 신속하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둘째, 새로운 매체의 개발은 정보의 이용과 소통을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개별화된 활동을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화(individuation)는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한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효과가 생기도록 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 준다. 그 뿐 아니라 대중전달매체도 종래와 같이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개인 수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여지가 커지며 더 나아가서는 대중정보의 생산에까지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은 대중사회의 일방적 전달과 수용의 관계에서 양방적인 유형으로 바뀔 가능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가 인간 의사소통의 유형과 성격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중화가 개인을 원자화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외감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지만,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비대중화(de-massification)가 개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조장하는 반면에 의사소통의 개인화를 가져 오게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혼자서 컴퓨터와 전화 앞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상황은 실제로는 인간이 기계를 매체로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소외와 사회적 고립화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그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집합화, 중앙집권화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세번째 쟁점은 바로 이러한 집합화나 중앙집권화와 관련이 깊은 통제와 배분의 문제이다. 앞

에서 정보의 불평등배분에 관해 언급하였거니와 정보의 소유·통제는 대부분 그 매체의 소유·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소유와 통제이다. 비록 개인화된 컴퓨터와 전화통신망의 종합통신체계가 보급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중앙체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도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분권화와 개인화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도와 사회조직의 원리와 사회를 운용·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독과점의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다. 혹시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른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집권적 통제의 쟁점이 떠오르게 된다. 어떤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개개 시민의 사사로운 정보와 생활상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은 정보에의 독과점적, 차별적 접근가능성(access)은 정보를 남용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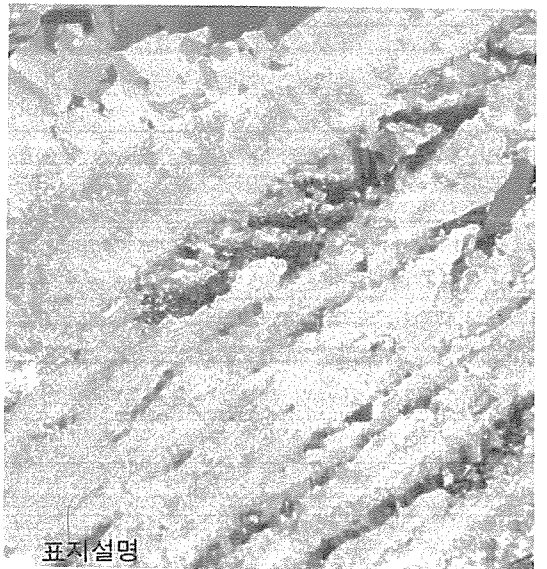
끝으로, 이 문제는 결국 정보자체나 정보원, 그리고 그것의 관리·처리·전달매체에 대한 소유, 통제, 접근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쟁점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와같은 불평등 구조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원천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왜곡된 의사소통(Distorted Communication)이야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해 마땅한 문제로 부각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누구하고든 간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정당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그것들을 역시 옳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갖가지 사회구조적 여건때문에 그러한 이상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 구조적 요인들이란,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즉, 계급적·계층적 지위이고, 거기에 학력·직업·소득과 주거지역의 상황, 교분을 갖는 사람들의 지위 같은 요소가 들어간다

남녀의 성별차이도 있고 나이에 따른 차등도 심하다. 사회에 따라서는 인종차별이 있는가 하면 종교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 위세도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불평등 구조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그만큼 왜곡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면,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정보와 그 전달·관리매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정보불평등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치명적인 왜곡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한 왜곡은 비단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혁명의 기술적 측면을 우리는 환영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삶과 의사소통에 가져다 줄 결과의 양면성을 깊이 성찰하여 이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정보통신혁명이 사회문화의 다른 측면에 문화지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적 기능외에도 잠재적기능이 생기므로 이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비하는 일이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표지설명

편광현미경으로 본 스�멕틱액정의 층구조 전압을 걸면 층이 조금씩 이행한다.